사상체질학회지
J.of Sasang Const. Med
Vol. 14. No 2. 2002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意義에 대한 硏究

박 성 식*

Abstract

A Study on the 「DongMuSunSaSaSangYakSungSangHumGoGa」's Origin and Meaning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I think that the study on the 「DongMuSunSaSaSangYakSungSangHumGoGa」 of 『DongMuYooGo』 is basic material explaining the character of sasang-herb and prescription. Through the study on the 「DongMuSunSaSaSangYakSungSangHumGoGa」's origin and meaning, I can take the result as follows.

The first, that is composed of total 237 herbs of 90 spleen-herb (Soeumin-herb), 61 kidney-herb (Soyangin-herb), 67 lung-herb (Taeeumin-herb) and 19 liver-herb (Taeyangin-herb).

The second, the origin of that is 『JeJungSinPyun』, 『BangYakHapPyun』 and 『EuiHakIpMum』. And DongMu classified traditional YakSungGa as spleen-herb, kidney-herb, lung-herb and liver-herb which is suitable to Sasangin, not created that. So we can know that the first understanding for DongMu's herb is focused on the traditional YakSungGa.

The third, DongMu's unique terminology of spleen-herb, kidney-herb, lung-herb and liver herb show his sight of symptom, disease and pharmacology, that is focused on small JangBu.

The forth, through herb-nature gathered from traditional YakSungGa, that purposed to classfying each constitutional herb. So we can know his idea that the choice of herb is not in general efficacy but in personal constitution.

As mentioned abovet, that can refer to an herbal argument of DongMu and 『DongMuYooGo YakSungGa』 that make known to be common can refer to an prescriptional argument of DongMu.

Key word : DongMuSunSaSaSangYakSungSangHumGoGa, YakSungGa, Sasang-herb

I. 緖 論

藥物의 氣·味·色·形을 관찰하고 藥性을 硏究하는 것이 韓醫學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1] 한의학의 藥性 理論은 陰陽, 臟腑, 經絡 등의 說을 基礎로 하고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본 연구는 동국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박성식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박성식
전화) 031-710-3723 FAX: 031-710-3780 ID> E-mail : parkss@dongguk.edu

있다.[1]

그러나 1894년 東武 李濟馬(1837-1900)에 의하여 創案된 四象醫學은 理論的 背景이 陰陽五行論을 중심으로 하는 旣存 韓醫學과 달리 事心身物的 四象論을 중심으로 形成되고 있어서四象醫學은 四象人의 生理 病理 및 診斷 治療에 이르기까지 旣存醫學과 다른 特徵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藥物의 效能에 대한 理解나 方劑에 있어서도 旣存의 醫學理論과는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四象醫學에서는 體質에 따라 藥도 區分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體質病證에 따른 藥理를 강조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2]에는 新定方을 중심으로 藥物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旣存 本草學的 視覺에 根據하여 그 效能을 說明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四象醫學에서 藥物의 效能과 方劑에 대한 硏究가 四象醫學의 發展에 더욱 必要하게 되었으나, 基本的인 資料의 不足과 難解함으로 인해 四象醫學의 藥物과 方劑를 說明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最近에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3]과 『東武遺稿』[4]등이 알려지게 되면서 四象醫學이 成立하게 되는 緣由와 過程을 理解할 수 있는 資料가 새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東武遺稿』[5]에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6]와 「先師藥性說歌」[7]와 같이 약물에 대한 東武의 見解가 나타나 있는 자료가 많이 있다. 그 중 「先師藥性說歌」에 대해서는 著者가 이미 2001년에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硏究'[8]에서 이 藥性歌가 東武의 50세 중반 무렵의 著作物로 추정되는 것으로 著述의 目的이 四象方劑의 構成原理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 대한 硏究는 아직 접한 바 없다.

이에 著者는 『東武遺稿』에 기록되어 있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著者나 著述目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藥性歌의 淵源에 관한 것과 이 藥性歌가 지니는 四象醫學的 意義가 무엇인가에 대한 硏究를 진행한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藥性歌의 淵源과 背景

藥性歌는 약재의 성질이나 효능을 암송하기 쉽게 가결형식으로 간결하게 써 놓은 것으로, 주로 漢詩의 七言句나 八言句(四言句)로 지어 暗誦함으로써 藥物의 效能을 쉽게 기억하게 하였다.

한의학에서 藥物의 效能을 藥性歌로 지어 이해하려는 것은 龔廷賢의 『萬病回春』[9]과 『壽世保元』[10]이 대표적이다. 『萬病回春』에서는 240種에 대한 藥性歌를 기재하였고, 『壽世保元』에는 392種[11]에 대한 藥性歌를 수록

1) 申佶求. 申氏本草學(總論). 서울:壽文社. 1988:27.
2) 康秉秀 · 金永坂. 臨床配合本草學. 서울:永林社. 1994:80.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影印本. 서울:대성문화사. 1998.
4) 金九堈(魯山) 筆,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5) 량병무, 차광석 번역. 李濟馬 저. 東武遺稿(國譯韓醫學大系 15). 서울:海東醫學社. 1999.
6) 東武遺稿. 앞의 책. :21-98, 146-157.
7)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白朮甘溫 健脾强胃 止瀉除濕 兼敷痰痞, 甘草甘溫 調和諸藥 灸則溫中 生則瀉火"와 같이 표현된 것을 말한다.
8) "人蔘 補脾和脾, 白朮 健脾直脾, 灸甘草 固脾立脾"와 같이 표현된 것을 말한다.
9) 朴性植.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硏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10)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台北:大中國圖書公司. 中華民國74年(1985年):上卷15-23.
11) 龔廷賢. 壽世保元. 重廣:重廣大學出版社. 1995:42-59.
11) 『壽世保元』 藥性歌括에는 共四百味라 하여 총 400종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헤아려 본바 392종 이었다.

하여 『萬病回春』의 藥性歌 보다 152種이 많다. 모든 藥材를 암송에 간편하도록 藥名, 性味, 治療, 製法 등을 八言二句(四言四句)의 詩句로 編成하여 한번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記憶이 되도록 하였다.

藥性歌를 통한 本草의 理解는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나라에서 藥性歌는 朝鮮後期 康命吉의 『濟衆新編』[12](1799년)에서 처음 나타난다. 『濟衆新編』 藥性歌는 『壽世保元』의 藥 303種에다 83種을 增補하여 총 386種이며 모두 八言二句(四言四句)로 구성되어 있다. 약 이름 위쪽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약재는 唐이라고 기록하였고, 藥性歌 아래에는 藥의 우리말 명칭을 한글로 간단히 언급하고 炮製法을 添附하기도 하였다.[13] 이후 黃度淵의 『醫宗損益』[14](1868년)에도 藥性歌가 나타난다. 『醫宗損益』의 藥性歌는 『壽世保元』에서 361種, 濟衆新編에서 80種을 採擇하고, 다시 73種를 新增添加하여 총 514種이며 모두 八言二句(四言四句)로 구성되어 있다. 『濟衆新編』에서 採擇한 것은 濟, 新增品은 增,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唐이라고 하여 出處를 明記하였다. 『醫宗損益』 藥性歌의 藥物順序는 『本草綱目』의 分類法처럼 草, 木, 蟲, 魚, 金石 等으로 分類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黃度淵의 『方藥合編』[15](1885년)에도 藥性歌가 나타난다. 『方藥合編』 藥性歌는 『醫宗損益』의 藥性歌를 그대로 引用하여 藥物의 순서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전까지 약성가가 八言二句(四言四句)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方藥合編』 藥性歌는 七言二句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운율을 맞추어 誦讀에 편리하고자 위함이며,[16] 石油[17]의 藥性歌가 『醫宗損益』의 藥性歌에 추가되어서 총 515種의 藥性歌가 있다. 『方藥合編』에 引用式 편찬으로 실용되고 있는 藥性歌는 朝鮮 後期에 있어서 醫生間에 最上의 利用書로서 각광을 받았다.[18] 따라서 朝鮮 後期를 살다간 東武 李濟馬(1837-1900)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894년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할 때 까지 흔히 알려진 藥性歌를 習得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2. 四象醫學에서 사용되는 藥性歌

최근에 알려진 『東武遺稿』에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와 「先師藥性說歌」의 2종류의 藥性歌가 있다. 즉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237種(234種)[19]의 藥에 대한 藥性을 古歌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 아래에 「先師藥性說歌」라 하여 '東武遺稿 藥性歌'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데, 四象人 藥材類에서는 같은 내용을 四象人別 藥性을 설명하면서 소음인 약 27종, 소양인 약 27종, 태음인 약 27종을 18종의 약성가로 모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藥性歌에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와 「先師藥性說歌」의 2종류로 볼 수 있으나,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말 그대로 東武가 藥性을 經驗한 古歌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상의학 관계 文獻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며, 일

12) 康命吉 著. 濟衆新編. 서울:驪江出版社. 1992:147-159.
13) 濟衆新編. 앞의 책. :147-158.
14) 黃度淵 著, 金信根 編. 醫宗損益(韓國醫學大系 26卷). 서울:驪江出版社. 1988:395-494.
15)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南山堂. 1985.
16) 方藥合編. 앞의 책. "歌用七言爲句 以便誦讀" 上揭書. :119.
17) "石油辛毒兒驚風 途疥癬癩及殺蟲" 上揭書. :345-346.
18)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편. 본초학. 서울:永林社. 1991:37-38.
19) 『東武遺稿』의 解題에는 총 213종으로, 脾藥 90종, 肺藥 61종, 腎藥 67종, 肝藥 15종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 헤아려 보면 脾藥 90種, 肺藥 61種, 腎藥 67種, 肝藥 19種으로 모두 237種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약물도 있다. 神曲은 脾藥과 腎藥에서, 柴河車도 脾藥과 腎藥에서 柴胡는 腎藥과 肝藥에서 각각 1회씩 헤아린 값이다. 중복된 경우를 1회씩만 계산하면 총 234種이 된다.

반적으로 東武遺稿 藥性歌라 하여 알려진 것은 『東醫四象診療醫典』[20]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先師藥性說歌」를 말하고 있다.[21]

3.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1)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構成形態的 特徵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旣存의 藥性歌 형태로 설명되는 237種의 藥物을 체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소음인 약은 脾藥으로 90種, 소양인 약은 腎藥으로 67種, 태음인 약은 肺藥으로 61種, 태양인 약은 肝藥으로 19種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중복된 약은 그대로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旣存의 藥性歌는 文獻에 따라 七言句나 八言句(四言句)중 하나의 韻律 로 작성된 것에 비해,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七言句와 八言句(四言句)가 複合되어 있다는 것 이 特徵이다.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構成形態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와 같이 八言二句(四言四句)의 형식을 지니는 경우이다. 둘째는 "罌粟殼酸澁亦溫 久瀉痢嗽劫其根 收氣入腎治骨痛 鴉片性急須少食"와 같이 七言四句의 형식을 지니는 경우이다. 셋째는 "三稜味苦利血癖 氣滯作疼虛莫擲"과 같이 七言二句의 형식을 지니는 경우이며, 넷째로는 "金蛇酒"나 "項赤蛇" 혹은 "蘇子 紫蘇之子"와 같이 藥名만 기록되거나 간단한 說明만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237種의 藥性歌 가운데 八言二句(四言四句)로 구성된 藥性歌는 178種(75.4%), 七言四句로 구성된 藥性歌는 8種(10.2%), 七言二句로 구성된 약성가는 24種(10.2%), 그리고 단순 설명이나 藥名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27種(11.4%)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特徵은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柴河車와 神曲은 脾藥과 腎藥에서, 柴胡는 腎藥과 肝藥에서 중복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 논난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肺藥에서 설명되는 金鷄蠟을 소양인 약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이 註에 해당하는 말[22]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표 1).

2)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著者

체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藥性歌를 內容을 중심으로 그 淵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중 八言二句(四言四句)로 구성된 藥性歌는 모두 『濟衆新編』의 藥性歌와 일치한다.[23] 七言四句로 구성된 藥性歌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浮萍이 『醫學入門』에서는 水萍으로 약명만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나머지 모든 약은 『醫學入門』의 內容과 일치한다.[24] 七言二句로 구성된 藥性歌는 『方藥合編』의 藥性歌와 모두 일치한다 다만 石花는 『方藥合編』의 牡蠣와 藥名이 바뀌었을 뿐 藥性歌의 내용은 同一하다. 그러므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濟衆新編』, 『醫學入門』, 『方藥合編』의 藥性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藥

20) 李泰浩 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重版. 서울:행림출판사. 1990:15-22.

21) 1966년 7월 北韓 保健省에서 謄寫本으로 간행한 東武遺稿를 1999년 3월 서울의 해동의학사에서 東武遺稿(韓國醫學大系 15)로 출판되었다. 이 책이 알려지기전까지는 通常的으로 '東武遺稿藥性歌'라 하면 「東醫四象診療醫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졌다.

22) "金鷄蠟 瘧疾用 又少陽人藥" 『東武遺稿』. 앞의 책:70.

23) 半夏와 같은 경우에 『濟衆新編』 藥性歌는 "半夏味辛健脾燥濕 痰厥頭疼嗽嘔堪入"이라 하였으나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는 "半夏味辛健脾燥濕 痰厥頭痛嗽嘔堪入"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濟衆新編』의 藥性歌와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10여곳 있으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24) 安秉國 譯, 李梴 著. 國譯編註醫學入門Ⅱ(本草). 서울:남산당. 1995:222, 232, 268, 412, 708, 952, 1116, 1368.

표 1.「東武先師 四象藥性 嘗驗古歌」의 構成 形態와 淵源

藥性歌의 淵源	濟衆新編		醫學入門		方藥合編				
區分	八言二句(四言四句)	합 (%)	七言四句	합 (%)	七言二句	합 (%)	其他	합 (%)	합계 (%)
脾藥	人蔘,黃芪,白朮,蒼朮,當歸,川芎,甘草,白芍藥,赤芍藥,紫蘇葉,香附子,靑皮,陳皮,厚朴,半夏,藿香,大腹皮,益智仁,乾薑,小茴香,大茴香,良薑,生薑,附子,沈香,丁香,安息香,檀香,砂仁,肉桂,桂枝,吳茱萸,肉豆蔲,白豆蔲,山査,五靈脂,茵蔯,艾葉,益母草,巴豆,何首烏,破古紙,砒霜,石蜜,蔥白,大蒜,雄鷄,犬肉,大棗,稷米,粟米,糯米,甘藷,蓽拔,訶子,胡椒,木香,香薷,烏藥,枳實,枳殼,玄胡索,硫黃,川楝子,赤石脂,細辛,**紫河車**	67 (28.3)	罌粟殼	1 (0.4)	禹餘粮,丁公藤,鐵漿,三稜,蓬朮,川烏,川椒,南星,常山,鱉甲,桃仁,紅花,**神曲**	13 (5.5)	金蛇酒,項赤蛇,獐肝 及茸,桂皮及心,海鹽自然汁 及鹽,蘇子,蘇合油,雉肉,檳郎	9 (3.8)	90 (38.0)
肺藥	麥門冬,天門冬,黃芩,大黃,升麻,桔梗,麻黃,葛根,白芷,藁本,遠志,酸棗仁,石菖蒲,栢子仁,蓮肉,薏苡仁,蒲黃,款冬花,桑白皮,杏仁,烏梅,菊花,犀角,羚羊角,樗根白皮,瓜蔕,使君子,五味子,薯蕷,龍骨,鹿茸,麝香,牛黃,酒,龍腦,牛肉,熊膽,龍眼肉,蘿蔔子,白果,梨,栗子,蘿葍	43 (18.1)	皀角 浮萍 蠐螬	3 (1.3)	萊菔根,側栢葉,大豆黃卷,金箔,白蘞,酸漿,田螺	7 (3.0)	鯉膽,陵苓,鬱金,車前葉,鹿角膠及角,砂糖,金啓蠟,熟鷄卵	8 (3.4)	61 (25.7)
腎藥	熟地黃,生地黃,茯苓,黃蓮,黃栢,梔子,石膏,滑石,知母,**柴胡**,連翹,前胡,薄荷,防風,荊芥,羌活,獨活,豬苓,澤瀉,木通,車前子,地骨皮,牧丹皮,玄蔘,苦蔘,甘遂,金銀花,枸杞子,山茱萸,乳香,沒藥,水銀,靈砂,**紫河車**,人乳,童便,硼砂,朱砂,竹瀝,瓜蔞仁,覆盆子,豬肉,綠豆,河豚,大麥,小麥,**神曲**,麥芽,肉蓯蓉,赤小豆,海蔘,榛子,甛瓜,忍冬,鷄內金,天花粉,茯神,芒硝	58 (24.4)	輕粉 牛蒡子	2 (0.8)	石花,石油,生乾地,蘆薈	4 (1.7)	生鷄卵,黑桑椹,竹茹	3 (1.3)	67 (28.3)
肝藥	木瓜,五加皮,鯽魚,茅根,蕎麥,櫻桃,獼猴桃,葡萄,草龍膽,柿子	10 (4.2)	蘆根 蚌蛤	2 (0.8)		0 (0.0)	靑松節,**柴胡**,松花,蕈,杵頭糠,淸酒,杏肉	7 (3.0)	19 (8.0)
합계 (%)	178 (75.1)		8 (3.4)		24 (10.1)		27 (11.4)		237 (100.0)
비고	중복된 神麯, 紫河車, 柴胡(위의 표에서 굵은 글자로 표시)를 1회씩만 계산하면 총234종								

性歌를 기록한『濟衆新編』의 藥性歌를 爲主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7種의 藥性歌 가운데『濟衆新編』에 근거한 것이 178種(75.4%),『方藥合編』에 근거한 것이 24種(10.2%),『醫學入門』에서 근거한 것이 8種(3.4%)이며, 기타 약물들이 27種(11.4%)이다. 따라서「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대부분이『濟衆新編』의 藥性歌를 인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藥物 順序도『濟衆新編』의 藥性歌 順序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25] 중간에 일부『方藥合編』과『醫學入門』의 藥性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5)「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가운데 脾藥에서 설명되는 人蔘, 黃芪, 白朮, 當歸, 川芎, 甘草, 白芍藥 등으로 나타나는 순서는『濟衆新編』의 藥物 順序와 一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腎藥과 肺藥의 순서도『濟衆新編』의 藥物 順序에서 脾藥을 제외하고 나오는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표 1).

따라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東武가 작성한 藥性歌가 아니라, 旣存의 藥性歌를 四象人에 따라 藥物을 區分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東武의 本草에 대한 이해가 旣存의 藥性歌的 本草의 效能을 基本으로 出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端緖가 된다. 이러한 藥性歌는 특히 朝鮮 後期에 流行한 것으로, 朝鮮 後期를 살다간 東武도 당시에 流行한 藥性歌를 習得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藥性歌 내용은 東武의 著作이 아니고, 四象人別 藥物의 區分만 東武의 著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濟衆新編』의 藥性歌는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서, 『方藥合編』의 藥性歌는 『醫宗損益』과 『濟衆新編』에서 淵源을 찾을 수 있으므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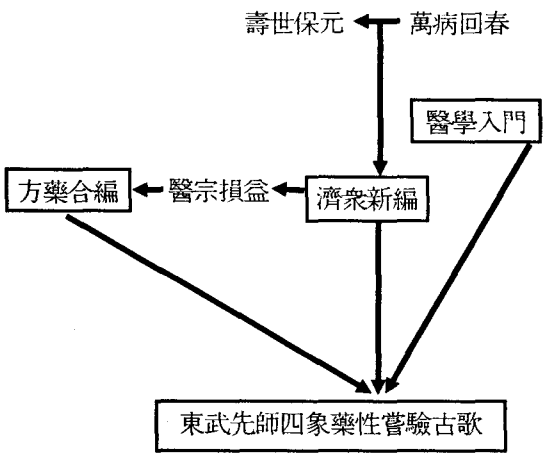

그림 1.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

3)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著述時期 推定

四象人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東武가 직접 藥性歌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서 체질별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어느 時點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 구분된 藥物을 보면 일부 重複되게 나타나는 藥物(神曲, 柴河車, 柴胡)도 있으며, 四象人에 따른 약물을 구분하기는 하되 실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26]과 辛丑本[27]에서 사용되지 않은 약이 많이 있다 (표 2).

따라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가 東武의 著作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體質이 분명하지 않거나 重複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은 藥物 가운데에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나 『東醫四象新編』의 처방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많이 있다. 따라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 나타난 四象人別 藥物의 區分은 東武의 藥物에 대한 初期 생각이 나타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著述時期는 東武가 醫學을 공부하기 시작할 初期 무렵(39세 경)이 아닌가 하는 推定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가 東武의 의학이 정립되어가는 末年에 著述된 것이라는 推定도 가능하다. 그 근거는 첫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28]에서 太陽人藥으로 취급된 芍藥, 生甘草 등이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서는 모두 脾藥(少陰人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東武

26)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

27) 東武는 甲午年(1894년)에 東醫壽世保元을 처음 완성한 이후 庚子年(1900년)에 돌아 가실 때 까지 改草하셨다. 東武死後인 辛丑年(1901년)에 門人들이 甲午本과 庚子本을 모아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 所藏된 이 책을 사상체질의학회에서 1998년 影印하여 발행하였다.

28) "獼猴桃湯 治太陽人裏證 獼猴桃·葡萄 各三錢 木果 二錢 白芍藥·生甘草" 各一錢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卷之三 太陽人 藥方」. 앞의 책.

표 2.「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藥物중『東醫壽世保元』에서 사용되지 않은 藥

體 質	少陰人 藥物 (脾藥) 90種	少陽人 藥物 (腎藥) 61種	太陰人 藥物 (肺藥) 67種	太陽人 藥物 (肝藥) 19種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사용되지 않은 藥	犬肉,糯米,南星,檀香,大茴香,桃仁,鱉甲,蓬朮,砒霜,檳榔,三稜,常山,細辛,蘇子,蘇合油,粟米,神曲,安息香,艾葉,烏藥,禹餘粮,雄黃,硫黃,紫河車,獐茸,赤芍藥,丁公藤,枳殼,稷米,練子,川烏,川椒,沈香,蓽拔,香薷,玄胡索,紅花,	綠豆,大麥,童便,芒硝,麥芽,硼砂,生鷄卵,石油,石花,小麥,人乳,紫河車,豬肉,赤豆,竹瀝,竹茹,榛子,天花粉,甜瓜,海蔘,黑桑椹	金鷄蠟,蘿蔔,蘿蔔根,鹿角(膠),陵苓,砂糖,酸漿,牛肉,鬱金,梨,鯉膽,田螺,酒,蒲黃	茅根,柿子,柴胡,淸酒,草龍膽,杏肉
합계	37種 (44.1%)	21種 (34.4%)	14種 (20.9 %)	6種 (31.6%)
비고	紫河車는 少陽人과 중복된다.	紫河車는 少陰人과 중복된다.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는蘿蔔 蘿蔔根 蘿蔔子와, 鹿茸 鹿角을 구분하고 있으나『東醫壽世保元』에는 蘿蔔子와 鹿茸만 사용됨.	柴胡는 『東醫壽世保元』에 少陽人藥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는 太陽人藥에도 중복되어 있다.

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는 使君子가 肺藥(太陰人 藥)으로 分類되어 있다는 점이다. 東武는 使君子를 처음에는 어느 체질 약인지 모르다가 말년에 太陰人 藥으로 確證하는 내용이『東醫壽世保元』에 나온다.『東醫壽世保元』의 少陽人經驗方중 肥兒丸에서는 "使君子 한 가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서 약의 성질을 확실히 알지 못하므로 경솔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太陰人 新定方중 麻黃定痛湯에 使君子가 들어 있다.[29] 따라서 東武는 經驗方을 작성할 당시(甲午年 · 1894년 경)에는 使君子에 대한 藥性이 明確하지 않다가, 太陰人 新定方을 쓸 무렵(1900년 경)에는 使君子를 태음인 약으로 明確히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보다 나중에 作成되고, 또한 甲午年(東武 58세) 보다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어느 한 時期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 보다는 보다는 東武가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初期(39세 경)부터 末年(58세 이후)까지 時間을 두고 점차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藥性歌 중에는 뒤에 追加하여 설명한 부분도 있다.[30] 이러한 부분은 東武가 스스로 처음 기록한 내용에다 追加하거나 變更하였을 可能性이 있으며, 後人들이 加筆하였을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이란 名

29) "肥兒丸 胡黃連 五錢 使君子肉 四錢 五分 人蔘 黃連 神麴 麥芽 山査肉 各三錢 五分 白茯苓 白朮 炙甘草 各三錢 蘆薈煆 二錢 五分 右爲末 黃米糊和丸 菉豆大 米飮下 二三十丸 此方 出於聾信醫鑑書中 治小兒疳積 ○ 今考更定 此方當去人蔘 白朮 山査肉 甘草而使君子一味 未能經驗 的知藥性故 不敢輕論"『東醫壽世保元 · 少陽人 經驗方』"麻黃定痛湯 薏苡仁 三錢 麻黃 蘿蔔子各二錢 杏仁 石菖蒲 桔梗 麥門冬 五味子 使君子 龍眼肉 栢子仁各一錢 乾栗七箇"『東醫壽世保元』「太陰人 新定方」

30)『東武遺稿』. 前揭書. :40쪽에는 脾藥에서 "稷米甘寒 益氣補中 壓丹石毒 多食發冷 少陽人"이라 하여 少陽人이 추가되어 있다. 49쪽에도 脾藥에서 "紫河車甘 療諸虛損 勞瘵骨蒸 熱嗽尤捷 腎藥亦見" 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稱도 後人이 이름지어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意義

「東武先師 四象藥性 嘗驗古歌」는 四象人에 따라 적응 약물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약물의 효능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藥性歌를 근거로 한 것이다. 기존 본초적 효능을 중심으로 설명한 藥性歌를 四象人에 따라 구분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은 臨床的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定立되어 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東武는 藥物에 대한 基礎的 理解는 旣存 藥性歌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目的은 體質에 適合한 藥物을 選擇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는 體質에 따라 藥物을 區分하는 方法이 분명하지 않다.

東武가 四象人에 따라 藥物을 區分하는 方法은 『東武遺稿』의 다른 資料로 類推할 수 있다. 즉 소음인은 升하고, 소양인은 降하고, 태음인은 開하고, 태양인은 闔하는 機能을 가진 藥物을 活用한다는 升降開闔[31]의 方法이 첫째이고, 태음인은 馨의 특징을, 소음인은 臭의 특징을, 태양인은 液의 특징을, 소양인은 味의 특징을 가진 藥物을 選擇한다는 馨臭液味[32]의 方法이 두 번째이다. 이와 같은 東武의 獨特한 사상인에 따른 藥物 分類의 理由를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서 體質別 藥物의 分類 基準을 찾을 수는 없다. 東武는 旣存의 藥性歌를 통하여 習得한 藥性을 자신의 獨特한 藥物觀과 臨床經驗이 이루어짐에 따라 各 藥物들을 體質에 따라 區分하면서 하나하나 追加하여 形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旣存의 藥性歌的 藥物의 效能도 體質에 따라 區分되어 適用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모든 藥物을 體質에 따라 區分하여 사용하고자 한 東武의 意圖를 알 수 있다.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는 소음인 약을 脾藥, 소양인 약을 腎藥, 태음인 약을 肺藥, 태양인 약을 肝藥이라고 하는 獨特한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東武는 小한 臟腑를 中心으로 하는 四象人의 病證藥理觀을 알 수 있다.

또한 東武의 藥物에 대한 基礎的 출발은 당시 유행한 藥性歌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東武가 많이 引用한 『濟衆新編』의 藥性歌가 龔廷賢의 『壽世保元』에서 淵源한 것을 고려해 볼 때, 東武가 醫源論에서 자신의 著書를 '壽世保元'[33]이라 이름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에서 『東醫寶鑑』을 텍스트로 하여 病證을 引用하고 이에 自身의 見解를 덧붙이는 方法으로 病證論을 構成하였는데[34] 『東醫寶鑑』에는 龔信의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은 引用文獻으로 들어 있으나 『壽世保元』은 引用文獻에서 빠져 있고 藥性歌도 『東醫寶鑑』에는 없다.[35] 따라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31) "肺之病 闔氣多而開氣少 高其藥宜通 而不宜塞也 牛黃熊膽麝香麻黃杏仁山藥桔梗黃芩皁角之類 通力有餘 故肺病之吉藥也 蕎麥葡萄木瓜黃芪甘草之類 塞力有餘 故肺病之凶藥也, 肝之病 開氣多而闔氣少 故蕎麥葡萄黃芪甘草五加皮獼猴桃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吉藥也 牛黃麝香之類 通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附子當歸川芎木香陳皮蓼朮鹿茸紫河車之類 升力有餘 故脾病之吉藥也 石膏黃連澤瀉山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脾病之凶藥也, 腎之病 升氣多而降氣少 故地黃黃柏山茱萸枸杞子之類 降力有餘 故腎病之吉藥也 官桂附子蓼茸之類 升力有餘 故腎病之凶藥也" 「東武遺稿」 앞의 책. :165-166.

32) "四藥之於四臟也 馨歸於肺 臭歸於脾 液歸於肝 味歸於腎" 上揭書. :159. "藥物之性 厚馨者 歸於肺 厚臭者 歸於脾 厚沃者 歸於肝 厚味者 歸於腎 足故 黃柏木通山茱萸等屬 其味深吸 而入於腎 麥門冬五味子石菖浦等屬 其馨輕淸 而浮於肺 官桂附子白朮當歸等屬 其臭猛烈 而壯於脾 蕎麥葡萄木瓜等屬 其液緣淫 而緩於肝 以此而推 則百草可當而知之也" 「東武遺稿」. 앞의 책:211.

33) 東武는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余生於醫藥經驗五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壽世保元"이라 하여 자신의 書名을 壽世保元이라 하였고 東醫壽世保元이라 하지 않았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이란 書名은 東武가 口傳으로 門人들에게 전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門人들이 東武 死後에 책을 編纂하면서 기존의 壽世保元과 구분하여 東醫를 추가하였을 수 있다. 이는 許浚의 東醫寶鑑의 東醫라는 말과 相通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34) 朴性植 ·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四象에 대한 硏究. 사상의학회지. 1993;5(1):1-33

35) 許浚.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83.

淵源을 基準으로 보면, 東武는 龔廷賢(龔信)의 壽世保元과 李梴의 『醫學入門』은 직접 책을 보고 익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東武가 많은 歷代 醫家들 중에서 張仲景 許浚 朱肱에 이어 李梴과 龔信의 功業[36]을 높이 산 이유가 아닐까 한다.

Ⅲ. 結 論

『東武遺稿』에 기록되어 있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 대한 硏究가 四象藥物과 方劑의 特性을 설명하는데 基礎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意義를 硏究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총 237種(중복된 약물을 제외하면 234種)의 藥物을 體質에 따라 脾藥(少陰人 藥) 90種, 腎藥(少陽人 藥) 61種, 肺藥(太陰人 藥) 67種, 肝藥(太陽人 藥) 19種으로 分類하였다.
2.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은 『濟衆新編』, 『方藥合編』, 『醫學入門』으로, 東武가 藥性歌를 지은 것이 아니며 旣存의 藥性歌를 四象人에 따라 脾藥, 腎藥, 肺藥, 肝藥으로 區分한 것이므로 東武의 藥物에 대한 基礎的인 理解가 旣存의 藥性歌를 중심으로 出發했음을 알 수 있다
3.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脾藥, 肺藥, 腎藥, 肝藥이란 표현은 東武의 獨特한 用語로 小한 臟腑를 中心으로 하는 東武의 病證藥理觀이 나타나 있다.
4.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旣存의 藥性歌를 기초로 習得한 藥性을 四象人別로 區分하고자 한 것으로, 藥의 一般的 效能에 따르기 보다는 사람(體質)을 우선적으로 考慮하여 藥物을 選擇하고자 하는 東武의 意圖를 알 수 있다.

以上에서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東武의 藥物論이라 할 수 있으며, 「先師藥性說歌」(흔히 '東武遺稿 藥性歌'로 알려진 것)은 東武의 方劑論이라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 著. 濟衆新編. 서울:驪江出版社. 1992.
2. 康秉秀 · 金永坂. 臨床配合本草學. 서울:永林社. 1994.
3.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台北:大中國圖書公司. 中華民國74年(1985).
4. 龔廷賢. 壽世保元. 重廣:重廣大學出版社. 1995.
5. 金九翊(魯山) 筆,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6. 량병무 · 차광석 번역, 李濟馬 著. 國譯韓醫學大系 15 東武遺稿. 서울:海東醫學社. 1999.
7. 申佶求. 申氏本草學(總論). 서울:壽文社. 1988.
8. 安秉國 譯, 李梴 著. 國譯編註醫學入門II (本草). 서울:남산당. 1995.
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影印本. 서울:대성문화사. 1998.
10.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
11. 李泰浩 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重版. 서울: 행림출판사. 1990.
12. 全國韓醫科大學本草學敎授 編. 本草學. 서울:永林社. 1991.
13. 許浚.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83.
14. 黃度淵 著, 金信根 編. 醫宗損益(韓國醫學大系 26卷). 서울:驪江出版社. 1988.
15. 黃度淵 著. 對譯 證脈 · 方藥合編. 서울:南山堂. 1985.
16. 朴性植 ·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四象에 대한 硏究. 사상의학회지. 1993;5(1):1-33
17. 朴性植.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硏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36) "蓋自神農黃帝以後秦漢以前 病證藥理 張仲景 傳之 魏晋以後隋唐以前 病證藥理 朱肱傳之 宋元以後明以前 病證藥理 李梴龔信許浚傳之 若以醫家勤勞功業論之 則當以張仲景朱肱許浚爲首 而李梴龔信 次之"『東醫壽世保元』「醫源論」